

22-10,11,12 2023 년 1 월 10 일 밴쿠버 김은중이유진선교사 편지

1. 선교현장에서 전한 말씀 나눔(아버지 마음으로)

"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눅 15:20)

주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후원자님들 새해에 주님의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년이 지나 새해가 되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지난 해를 돌아보면서 올해 어떤 말씀을 붙들고 방향성을 삼을까 고민하다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기도 가운데 나왔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다가 탕자의 비유가 들어 있는 이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선교단체와 교회 청년부 사역자로 섬겼지만 이곳 캐나다에서 부목사 10 년과 지난 1 년 개척교회와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마음은 인내와 이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 이었습니다.

이곳 문화는 "자기 자신, 자기 가정, 자기 직장, 자기 비전"이라는 개인주의와 "enjoy" 문화속에 살다보니 한국의 공동체 중심과 교회에서의 헌신과 제자라는 단어가 낯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수준 차이가 없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잣대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디고 황당하고 시간이 오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제 안에 아버지 마음을 품고 살지 않으면 한 영혼도 붙잡지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내와 포용, 말씀과 기도 이 단어를 계속 되내이게 되었습니다.

한 해도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한해의 함찬 발걸음을 주 안에서 시작합니다. 주안에서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2. 10 월 -12 월 사역을 돌아보며

아래 사진은 10 월 레크레이션에서 처음으로 교회 오픈 예배를 드렸던 사진입니다.



아래 사진은 12월 17일 성탄 파티를 했던 사진들입니다.

여러 감사제목들이 있지만 두번 째줄 첫 사진인데 밴쿠버 갈릴리 교회 청년들이 그날 와서 찬양인도를 해 주었고 2023년은 매달 마지막주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협력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교회 설교하고 바ível 스터디 그리고 교회 탁구교제 어르신들 심방한 사진들입니다.



아래 사진은 캠퍼스 심방하고 탁구하고 성경공부하는 사진들입니다.



아래 사진은 아내가 10 월부터 밴쿠버 Career College 에 입학해서 어린집 교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 2022 년 7 대 감사제목.

1) 다민족 교회인 주안에 행복한 교회 오픈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10 개국이 넘는 사람들이 레크리에이션 센터를 빌려서 매주마다 예배하고 탁구교제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 SFU 대학에 5 명의 그룹바이블 스터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탁구 교제를 하다가 매주 화요일 6 시에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4 명이 박사 학위과정을 하고 있고 한명이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3) 아들 요한이가 4 년제 편입해서 공부를 마치게 되었고 아들 형준이가 토론토 대학에서 밴쿠버 UBC 대학으로 편입하기 위해 밴쿠버로 다시 돌아와 준비하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4) 밴쿠버 갈릴리 교회와 협력사역을 시작하게 되어 2023 년도에 매달 한번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밴쿠버에서 유학생 사역을 무려 25 년간 해오고 있는 교회입니다.

5) 아내가 어린이집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 개월 과정인데 벌써 2 개월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6) 한국의 후원자들과 교회가 계속하여 함께 기도하고 후원함으로 사역을 나누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7) 코로나 상황속에서도 교회와 캠퍼스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건강하게 사역을 이루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4. 2023 년 7 대 기도제목

2023 년은 “아버지 마음으로 “라는 표어로 누가복음 15:20 절 을 요절 삼아 시작하였습니다.

- 1) 매일 성령충만하여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새벽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빼지 않고 드릴수 있도록
- 2) 캠퍼스와 주안에 행복한 교회에 매주 마다 새로운 지체들이 나오고 쉬지 않고 전도하도록
- 3) 갈릴리 교회와 매달 4 짜주 찬양예배를 통해 다민족 사역을 잘 이루고 유학생 사역과 도시 선교의 열매가 맺히도록

- 4) 한국의 15 개 교회 후원과 밴쿠버 5 개 교회의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 개척이후에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사역하도록
- 5) 주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한 가정 이룰수 있도록 특별히 아내가 공부를 잘 마치고 형준이가 UBC 편입을 이룰수 있도록 한국의 요한이 직장생활 하나의 간호사생활과 대학원 과정을 잘 마무리 하도록
- 6) 한국의 후원교회와 후원자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도록
- 7) 가정의 복음화 이루어 주시도록 큰누나 작은형, 작은누나, 승희가 아직 주님을 모르고 있고 당료로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어머니임 85 세인데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